

우리 다악(茶樂) 세계로 세계로...

한국창작음악연구회, 캐나다 아트마켓에 초청 받아



국내 국악창작음악반으로 드물게 인기있는 '다악' 앨범(위)과 '다악' 연주자들.

차를 마실 때 빼 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찻자리의 흥취를 돋우는 다악(茶樂)이다. 차를 마시며 들을 만한 조용하고 선(禪)적인 음악인 우리 다악이 세계 시장에 첫 선을 보이게 된다.

'차와 우리 음악의 다리 놓기'를 표방하며 오늘날의 정서에 맞는 다악을 창작·발표해 온 한국창작음악연구회(회장 김정수·추계에 대 교육대학원장)가 오는 11월 14-1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마켓 시나르(Cinras: Commerce International de sants de la scene)에 공식 초청 받았다.

우리나라 작품이 시나르에 공식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우리 다악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상품'으로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시나르는 공연예술의 홍보 마케팅과 세계시장 보급을 목적으로 창설된 비영리 기구로 2년에 한 번 국제 아트마켓을 연다.

1998년 우리 고유의 음악언어에 뿌리를 둔 창작음악을 연구하기 위해 창단된 한국 창작음악연구회는 다양한 창작 다악을 발표하고 이를 악보집과 앨범 등으로 선보임으로써 우리 다악 알리기에 앞장 서 왔다. 1998년 1·2집 '다악'을 시작으로 99년 3



'다악' 연주는 '다도' 시연과 한 무대에서 열린다. 사진은 한국창작음악연구회의 '다악' 연주회.

집 '그 푸른 날들의 찻잔-초의(草衣)' 2000년 '찻잔에 스미는 사계' 2001년 '차 마시기 좋은 때의 풍경(風情)' 2002년 '차로 이어지는 겨레의 숨결' 2003년 '박일훈의 동다송(東茶謠)' 등 지금까지 8장의 앨범을 발표했다. 이 중 '다악' 1·2집은 국내 국악 창작 음반으로는 드물게 1만여 장 이상 판매돼 다악 대중화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초일향·동다송 등 공연 해외 진출 가능성 기대 차 정신까지 알릴 기회

매년 '다악 페스티벌'을 개최해 창작 다악을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쳐 온 한국창작음악연구회는 지난 5월 한국문화예술포럼의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돼 3년간 연간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아트마켓에 'Korean Tea Music'으로 소개되는 다악 작품은 그간 음반으로 발표했던 '초일향(草日香)'과 '동다송(東茶

頌)' 등이다. '초일향'은 차인회 '초일향' 회원들을 만난 느낌을 대금과 단소, 거문고와 양금으로 표현한 곡으로 서화(書畵) 시연이 곁들여진다. '동다송'은 가야금과 대금 연주로 차의 본성과 차 생활의 정성·중용·절제를 표현한 곡으로 한국화가 일련작(경북대 교수)의 설치미술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 석문호를 수련의 깊은 경지에서 보여주는 풍류인 현무(玄舞)를 곁들인 '달빛에 사냥물이 휘영청' 등 '다악' 앨범에 실린 대표작들도 공연된다.

김정수 회장은 "다악은 각박한 현대인들의 삶 속에 여백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음악"이라며 "이번 다악 공연을 통해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악 창작에 매진해 온 작곡가 박일훈씨(국악연구실장)는 "다악은 차에 내재된 정신을 담아내는 음악을 추구한다"며 "다악을 통해 우리나라의 차 정신 나아가 민족 정신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창작음악연구회는 내년 3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축제에서도 우리 다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02)2272-2152

여수령 기자 snosy@buddhanews.com



인류 문화속의 茶

4. 신비의 음료

영국의 커피하우스

유럽에 커피가 유입되기 전 포도와 맥주 등 알코올 음료는 유럽인의 음식인 동시에 음료였다. 커피가 유입될 당시 영국은 술이 일상음료가 되어있었다.

특히 1650년대 영국은 내란(청교도 혁명)으로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으며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술을 폭음(暴飲)하였다. 선술집이 있는 거리는 귀족들의 소란으로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여 알코올이 심각한 사회적인 병폐가 되었다.

커피는 이러한 사회적인 폐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의사들에 의하여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는 약품의 일종으로 지지를 받는다. 우울한 사

기위한 당원들의 접대와 집회장으로 이용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윌리엄 존스 법무장관에 의해 커피 하우스를 폐쇄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인들의 반발로 커피하우스 안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뒤 다시 문을 열기도 하였다.

상업적 장소로 이용되면서 선박과 화물경매를 위해 선장, 선주, 상인들의 모임장소가 되며, 보험회사 대리인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최초의 근대적 신문 <스펙테이터(spectator)>가 발간되기도 하였으며 문인들에 의한 잡지가 만들어지는 등 정기 간행물의 편집소 역할을 한 곳도 바로 이 커피하우스였다.

결과적으로 커피하우스는 지식인들의 대화 장소와 사교장, 정치가의 일종으로 지지를 받는다. 우울한 사

'파스카 로제'를 시작으로 3000여곳 양산 지식인들 사교장 등 근대 사회 형성 모태

람에게 활기를, 다혈질의 사람은 온화한 성품을 주는 만병통치약으로 선전되기도 한다.

영국은 혼돈의 음요인 알코올에서 정신을 각성(覺醒)할 수 있는 이성적 음료인 커피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인 생활의 변화가 왔다.

이 사회적 변화는 '파스카 로제'라는 커피하우스를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17세기 후-18세기 초) 커피하우스가 3000여개나 양산되었다. 이러한 커피하우스는 문화와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소로, 사교의 장소로 혼자서 사색과 독서를 좋아하는 영국인의 습관을 바꾸었다.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몇 가지 독특한 규정이 있다. 대화를 할 때 흥분해서는 안 되며, 건배하는 행위를 금한다.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모두에게 커피 한 잔을 사야하는 벌칙도 있었다. 술품에 잠긴 연인들은 커피하우스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등 분위기에 많은 신경을 썼다.

한편, 정치인과 상업인, 지식인, 해산인 등 그들이 선호하는 커피 하우스마다 색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정치인들은 정치 세력을 확장하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지식인들의 사교장 등으로 사용되었다.

일 뿐만이 아니라 근대 사회의 중요한 모태가 되었다. 이 커피 하우스가 극장과 살롱과 비교되어 자유로운 공중의 오락 장소인 문화와 상업적 공간으로 발전되어 시민들의 생활중심의 문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 것은 18세기 이후부터이다.

이 당시 사람들은 커피하우스에서 커피나 차를 마시는 형식에는 관심을 없앴다. 커피는 처음에는 공적인 장소에서 마실 수 있는 음료였다. 차와 코코아도 판매를 하였으나 여자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차의 소비가 많지 않았다.

가정의 일상음료가 되면서 친숙한 부인들의 커피 모임이 만들어지고 매주 또는 매번 만나 커피를 마시는 놀이 문화가 형성된다.

19세기에 이르러 차와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커피하우스에서 조간신문과 모닝커피가 있는 집으로 장소가 바뀌게 된다.

커피는 한 때 알코올을 지척이었던 영국인을 각성시키는 새로운 음료로 합리적 사고력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으나 차(茶)처럼 영국인의 일용품이 되지 못하였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강진군, 전통 떡차 재현 보급

전남 강진군이 전통 떡차 재현과 보급에 나서 눈길을 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석)가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 10회에 걸쳐 남도 내립솥치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전통 떡차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떡차는 찻잎을 증기로 찌거나 가마솥에 튀은 뒤 절구에 찧어 떡 모양으로 빚었다 해서 단차(團茶), 병차(餅茶) 등으로 불리는 차다.

강진군은 "떡차는 삼국시대부터 제조 방법이 전해 내려와 강진 무위사와 백련사, 다산초당 등지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나 일본 강점기를 거치며 그 명맥이 끊겨 오늘날 거

의 사라지고 있다"며 "떡차 재현과 보급을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 떡차 문화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떡차 제다제형 및 시음회 등의 행사를 통해 떡차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도예가 김선식씨 초대展

대구 예술품갤러리 19일까지

도예가 김선식(관음요 대표)씨가 대구 예술품갤러리에서 '신지식인상 수상기념 사은전'을 8월 9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

김씨는 장작가마의 문제점인 나무 소비와 도자기 굽는 시간을 20%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건조 기술 개발로 지난해 문화예술부



문 '대한민국 신지식인상'을 수상했다. 8대를 이어온 도예 가문의 후손인 김씨는 경영 주사를 이용한 새로운 전자유약을 개발해 지난 4월 '도자기진사유약조성물'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관음열매다기'를 비롯해 다기와 다완, 한다기, 솟대 등 300여 점의 선보일 예정이다.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진년오롱·철관음·오롱차
대홍포·화차·인삼오롱 등 40여가지의 차

瑞榮普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법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휴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元·氣·回·復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蓼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골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 산삼에 비유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조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식물은 본초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蓼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구산업

www.bangaro.com/동두막.kr/경상.넷
TEL: (063) 323-3010 ~ 1
FAX: (063) 323-3012

계좌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박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선물용 부가세별도] 지역대리점 모집

元·氣·回·復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蓼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골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중독, 나병, 알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蓼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蓼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 보유)
- 자연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蓼